

## 1. 개요

□ 일 시 : 2021. 12. 17.(금), 14:00~16:30 / 영상회의

□ 참석자

- (수산혁신특별위원회) 류정곤 위원장, 조용준·이성우·김도훈·박상우  
위지연·김봉태·남수민·나승진·마창모 위원(10명)  
(사무국) 홍근형 팀장, 박진규·김세인 전문관  
(용역기관) 박준모 연구원(수산경제연구원), 이상규 연구원(KMI)

□ 주요 내용

- 수산혁신특위 정책연구용역(어촌 지역소멸 대응방안, 수산어촌 탄소중립 지원방안) 최종보고 및 검토
  - \* 최종보고는 의안보고서 형태로 자료 준비 및 보고
- 수산혁신특위 원탁회의(1차~3차) 일반용역 최종보고 및 검토
  - \* 원탁회의 개요, 주요 프로그램 및 핵심 결과 중심으로 정리 및 보고
- 농특위 의안보고 추진일정 등 향후 계획 논의

## 2. 주요 회의 결과

□ ‘수산어촌 분야 탄소중립 지원방안’ 의안보고서 주요 의견

- 의안보고서의 구성을 3대 분야 9개 과제로 재편 필요
  - 3대 분야는 수산분야 탄소중립 실행력 확보를 위해 제도분야, 예산분야, 조직분야로 구성

- 현황 부분에 국가 2050 탄소중립정책, 수산분야 탄소중립정책 포함
- 핵심과제의 제목을 파급력 있는 문구로 수정 필요
  - 예시) ‘어촌의 에너지 자립화 지원’을 ‘어촌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’으로 수정 등
- 수산진흥공사 설립의 경우 필요성은 인정되나,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예산 및 인력 확보 측면에서 부처의 부담으로 실현가능성 미약
  - 기존 어촌어항공단, 해양환경공단, 수산자원공단 등 탄소중립 관련 사업 추진 기관이 존재하며, 이들 기관의 역할 강화 및 사업 확대가 현실적임
    - 조직 신설 보다는 기존 바다숲 조성, 어업인 교육, 정책금융,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 전담기관 지정으로 선택과 집중이 효과적
- 탄소중립기금, 친환경어선 지원제도 마련 등 핵심정책과제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수산업 탄소중립 지원의 필요성 부각 필요
  - 친환경어선 대체 및 신조 지원 시 과거의 유사한 법 제정 및 지원 사례를 제시하여 법제정 논리성 확보
  - 수산분야에서 매년 253만톤의 탄소를 배출하는데 30년 후 11만톤 수준으로 감축할 경우 어업인 고충 파악, 실제 소요예산 추정치를 제시하면 효과적
- 수산분야 탄소중립 이행(선제적 어선 감척, 저탄소어선 보급 등)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며, 어업인 참여 확대를 위해 기금 조성이 필수적
  - 현재 해수부 및 기재부 등에서 검토 중인 ‘연근해어업혁신기금’과 연계하는 방법도 고려 가능
  - 어선 감척 이후 잔존 어선주들의 자조적인 자원 마련 등 노력을

보이면 기금의 재원 확보 가능성 높음(민간과 정부의 매칭펀드 등)

#### □ ‘어촌 지역소멸 선제적 대응방안’ 의안보고서 주요 의견

- 어촌소멸의 심각한 현실, 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데이터 제시도 중요하지만 ‘기회’로 활용 가능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도 필요
  - 소멸 위기지역 지원·보호 ⇒ 어촌의 기회요인 개발·활용
  - 어촌소멸에 대한 정확한 정의 필요(국가적·개인적 차원에서의 의미)
- 추진과제명은 조금 더 눈에 띄고 부각될 수 있는 네이밍으로 수정
  - 제안된 과제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기존 과제와의 차별성 및 추진 파급성을 가질 수 있는 과제명으로 수정 필요(타이틀은 과감하게)
  - 부처에서 생각하지 못했던, 추진하지 못했던 과제를 농특위에서 제안한다는 기조하에 전체 내용 검토 필요
    - 예시) 8. 어업인 기본소득제도 마련 ⇒ 연금제도 도입 및 창업 지원
- 어업활동의 안전성 문제, 어업 현장의 스마트화에 관한 내용 추가 고려
  - 현장에서는 어업 활동의 전반적인 위험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, 이런 취지에서 스마트 어업기술 도입 필요
  - 청년, 도시민 유입을 위해서는 어업의 3D업종 이미지 탈피가 필요하며 스마트기술 개발과 적용이 필수적

#### □ ‘수산혁신특위 원탁회의(1~3차)’ 최종보고 주요 의견

- 1~2차는 전국 동시(5개 권역) 실시간 영상회의 스트리밍 방식을 수산분야에서 처음 도입하고, 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한 것에서 큰 의미
- 3차는 수산어촌 미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6개 분과(연근해어업, 양식산업, 어촌삶의질, 어촌경제, 국제협력, 수산물소비) 동시 진행

- 6개 주제를 한 번의 회의로 진행하고 각 분과별 토론내용 발표를 통해 분야별 애로사항과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공유
- 대국민 홍보(유튜브 실시간 방송, 언론사 보도 등)를 통해 실제 원탁회의 장면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고, 의미 있는 결과 도출
- 다양한 회의 진행방식의 시도에 의의를 두며, 도출된 결과는 수산혁신 특위 의안보고서 작성에도 반영
- 2022년에도 수산혁신특위 신규 의제에 따라 원탁회의 및 토론 진행방식을 새롭게 구성하고 의미 있는 결과 도출 및 대국민 홍보 지속

### 3. 향후 계획

- (12.21~31) 안전에 대한 해수부 의견조회 및 안전 설명 실시
- (12.29) 농특위 본회의 운영위 보고
- ('22.1.4) 본위원 대상 안전 회람
- ('22.1.18) 농특위 본회의 의결